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조길현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모든 기업체들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증산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모든 기업체들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적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자면 계획사업을 짜고들어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계획적으로 맞물려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물자교류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기업체들사이에 진행되는 물자교류는 기업체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생산계획을 수행하고 생산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체들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설비, 자재들을 주고받는 사업이다.

기업체들에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생산과정에 리용되지 못하고있는 설비와 자재들이 존재하게 된다.

기업체들에는 생산지표가 달라지거나 생산조건이 보장되지 않아 놓고있는 설비, 설비의 현대화에 의해 생겨나는 필요없는 설비들을 비롯하여 놓고있는 설비들이 있게 된다. 또한 기업체들에는 용도가 맞지 않아 리용되지 못하고있는 자재, 여유로 가지고있는 사장된 자재도 있으며 자재소비기준을 낮추어 절약한 자재를 비롯하여 생산과정에 리용되지 못하고있는 자재들도 있게 된다.

이러한 설비와 자재들을 해당 설비와 자재들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업소들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교류하게 되면 긴장한 설비, 자재문제를 풀고 기업체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

이것은 계획적인 물자공급을 진행하면서도 기업체들사이에 유허설비와 자재를 유무상통하여 쓰도록 하는 물자보장의 보충적인 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체들에 대한 물자보장의 기본형식은 계획적인 물자공급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체들에 대한 물자보장의 기본형식이 계획적인 물자공급이라고 하여 기업체들에 대한 물자보장에서 계획적인 물자공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생산과정에 리용되지 못하고있는 설비와 자재들을 기업체들사이에 유무상통하여 쓰도록 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기업체들을 경제적으로 자극하고 생산을 활

성화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것은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를 계획적인 물자공급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리용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를 계획적인 물자공급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리용하는것은 기업체들이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생산을 진행할수 있게 하고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널리 동원리용할수 있게 한다.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물자교류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 문제는 물자교류를 철저히 국가의 계획적인 물자공급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리용하도록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물자교류를 철저히 국가의 계획적인 물자공급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리용하여야 물자교류를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본성에 맞게 잘 리용하여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할수 있다.

기업체들에 대한 물자보장에서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성격을 반영하고있는것은 국가의 계획적인 물자공급이다. 국가의 계획적인 물자공급은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성격을 반영하고있으며 나라의 모든 생산자원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힘있는 수단이다.

이것은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를 철저히 국가의 계획적인 물자공급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리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물자교류는 기업체들이 서로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유무상통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원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한다.

그러나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가 생산자원의 효과적리용과 생산의 정상화에 이바지한다고 하여 거기에 절대적의의를 부여하게 되면 기업체들에서 본위주의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계획적인 물자공급이 지장을 받을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인 성격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계획적인 물자공급을 기본으로 하면서 물자교류를 철저히 계획적인 물자공급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사회주의경제의 집단주의적이며 계획적인 성격을 옹호고수하고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기업체들사이에 진행되는 물자교류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국가적인 리익을 중심에 놓고 설비, 자재를 비롯한 물자를 교류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에서 국가적리익을 중심에 놓는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체들은 다같이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호상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에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매개 기업체들과 국가의 리해관계가 일치되는것으로 하여 인민경제적인 범위에서 설비, 자재들이 합리적으로 리용될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설비, 자재들이 전인민경제적인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리용될수 있

는 가능성은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체들에서 국가적리익을 중심에 놓고 사업하는 체도와 질서를 세울 때 비로소 현실화될수 있다.

경제부문과 단위들에서 저저마다 자기 단위의 리익만을 생각하면서 여유로 가지고있는 설비, 자재들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설비, 자재를 사장시켜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국가적인 리익을 중심에 놓고 물자교류를 진행해나가자면 기업체들에서 놓고있는 설비, 자재들과 교류에 리용할수 있는 생산물들을 전반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것들을 수요와 맞물려주기 위한 여러가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놓고있는 설비, 자재들을 가지고있으면 해당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에 자극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기업체들이 물자교류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물자교류에 리용될수 있는 물자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이다.

물자교류에 리용될수 있는 물자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는 국가의 계획적인 물자공급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의 생산 및 공급계획에 맞물린 물자들은 물자교류의 대상이 될수 없다.

기업체들사이에 교류할수 있는 물자에는 우선 기업체들에 존재하는 내부예비물자들이 포함된다.

기업체들은 경영활동과정에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생산과정에 리용되지 못하는 설비, 자재들을 가지고있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 이러한 물자들은 기업체가 내부예비로 동원할수 있는 물자들이다.

이러한 내부예비물자들은 보통 해당 기업체의 계획수행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것이라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다른 기업체들과 교류하여 자기 기업체에 필요한 물자들을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성원천의 측면에서 내부예비물자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수 있다.

하나는 기업체들에서 필요없이 놓고있는 설비, 자재들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체가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생산한 계획초과생산물이다.

기업체들에서 생산과정에 리용되지 못하고 놓고있는 설비들은 그 발생원인별로 보면 첫째로, 기업체의 생산지표가 달라져 놓고있는 설비들이다.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생산지표가 달라져 놓고있는 설비들도 있고 생산지표가 완전히 달라져 사장된 설비들도 있다.

일시적으로 생산지표가 달라져 놓고있는 설비들은 생산지표가 회복되면 다시 리용할수 있다. 그러나 생산지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해당 기업체에서 필요없는 설비로 되며 다른 부문, 다른 단위들에서 그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면 리용대책을 세워야 할 설비들이다. 따라서 기업체들에서는 놓고있는 이러한 설비들을 다른 기업체에 일정한 기간 빌려줄수 있다. 생산지표가 완전히 달라져 사장된 설비들은 해당 기업체에서 필요없는 설비로 되기때문에 다른 기업체와의 물자교류의 대상으로 된다.

둘째로, 원자재, 연료, 동력 등 생산조건이 보장되지 않아 놓고있는 설비 또는 설비

능력이다.

이 설비들은 그 리용조건(원자재, 연료, 동력 등)의 제약을 받아 일시적으로 서있는 설비들이다. 이런 설비들은 원자재와 연료, 동력 등이 보장될 때까지는 해당 기업체에 필요없는 설비이므로 다른 부문, 다른 단위들에서 일정한 기간 빌려주는 방법으로 설비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셋째로, 설비의 현대화에 의해 생겨나는 필요없는 설비들이다.

현시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현대화, 정보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현대적인 새 설비들로 교체되어 해당 기업체들에서 필요없이 된 설비들이 많이 생겨나고있다. 그러므로 다른 기업체들에서 그러한 설비들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면 물자교류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업체들에서 생산과정에 리용되지 못하고있는 자재들은 규격, 재질, 용도에 맞지 않아 사장되어있는 자재, 생산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자재, 자재소비기준을 갱신하여 절약한 자재, 수요를 보장하고 남은 자체수입물자들이다.

이러한 자재들은 해당 기업체들에서 사장되어있는 자재이며 기업체가 생산계획을 수행하고 생산을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중요한 원천으로 된다.

계획을 초과하여 생산한 생산물은 기업체가 물자교류에 리용할수 있는 내부예비물자의 하나이다.

생산계획범위안의 생산물은 계획화되어 공급계획에 따라 수요자에게 공급되지만 계획초과생산물은 계획화된 수요가 없는 생산물로서 계획외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원천으로 된다.

계획초과생산물은 추가적인 수요가 제기되는 대상들에 웃단위의 계획기관이 추가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할수도 있고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업체가 물자교류에 리용하도록 할수도 있다.

계획초과생산물에 대한 처분권을 기업체에 주고 그 일정한 몫을 물자교류원천으로 리용하게 하면 기업체들이 계획을 초과수행하는데 보다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하여 애쓰게 될뿐아니라 기업체들이 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걸린 자재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게 된다.

이것은 계획초과생산물을 물자교류원천으로 리용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기업체들사이에 교류할수 있는 물자에는 또한 생산정상화몫으로 받은 생산물이 포함된다.

생산정상화몫은 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국가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조건에서 기업체들이 부족되는 물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생산물가운데서 생산정상화용교류물자로 돌려쓰는 생산물의 규모이다.

생산정상화몫을 바로 규정하는것은 물자교류사업을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성격과 현실적조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된다.

기업체들의 생산정상화몫을 생산계획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량보다 크게 정해놓으면 국가가 동원할수 있는 생산물의 량이 적어져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성격을 약화시킬수 있다.

반대로 생산정상화몫을 필요한 량보다 작게 규정해주면 기업체들의 생산계획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을 활성화하는데 지장을 줄수 있다.

생산정상화목은 기업체들에 대한 물자보장의 현실태를 고려하면서도 국가의 계획적인 물자공급의 의의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규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생산정상화목의 규정에서는 기업체들이 인민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조건과 계획시기 총물자소요량에서 국가계획에 맞물려 공급받는 물자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산정상화목은 기업체들이 인민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생산 및 경영활동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업체별로 각이하게 규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생산정상화목은 해당 단위의 시기별 총물자소요량에서 국가계획에 맞물려 공급받는 물자의 규모를 바로 타산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에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국가계획에 맞물려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체들이 생산물의 일부를 생산정상화용교류물자로 조성리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업체들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계획에 맞물려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정상화목의 규모는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시기별 총물자소요량에서 국가계획에 맞물려 공급받는 물자의 규모에 전적으로 의존되게 된다. 다시말하여 시기별 총물자소요량가운데서 국가계획에 맞물려 공급받는 물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생산정상화용교류물자로 리용하는 생산물의 규모는 적어지고 그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규모는 커지게 된다.

기업체들에 대한 물자보장에서 기본은 계획적인 물자공급이며 생산정상화목은 계획화수준이 높아지고 계획규률이 확립되는데 따라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국가적으로 물자교류를 활발히 진행할수 있는 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다.

만일 기업체들이 자기에게 요구되는 물자를 가지고있는 대상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물자교류를 진행한다면 물자교류에서 신속성과 시기성을 보장하지 못할뿐아니라 물자교류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없다.

기업체들사이에 물자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자면 일정한 지역별로 물자교류거점을 조직하는것이 필요하다.

지역별물자교류거점은 공장, 기업소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있는 지역들에 조직하는것이 합리적이다. 공장, 기업소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있는 지역들에 물자교류거점을 조직하면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에서 신속성과 시기성을 보장하고 물자교류사업을 지역적범위에서 원활하게 진행해나갈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물자교류의 범위가 자기 지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필요한 물자들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원활하게 교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고 물자교류를 활발히 진행되게 하자면 국가적인 범위에서 물자교류를 위한 정보보장사업을 잘하는것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나 지역적범위에서 기업체들의 물자수요와 교류물자들에 대한 자료기지를 구축하고 그것을 하나의 정보망으로 연결하면 기업체들이 이 정보망을 통하여 자기에게 필요되는 물자를 가지고있는 대상, 자기 기업소의 물자를 요구하는 대상들을 쉽게 찾아 물자교류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다.

기업체들사이에 물자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자면 교류당사자들사이의 직접적인 물자교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각교류를 널리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실례로 베아링을 교류물자로 가지고있는 기업소는 피대를 요구하지만 베아링을 요구하는 기업소에는 피대가 없고 목재를 가지고있으며 피대를 교류물자로 가지고있는 기업소는 목재를 요구하는 경우 세개의 교류당사자들사이의 삼각교류의 방법으로 물자교류를 할 수 있다.

다각교류의 방법으로 물자교류를 진행하면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고 기업관리를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다.

기업체들사이의 물자교류에서 다각교류의 방법을 도입하자면 물자교류와 관련한 정보봉사를 개선하고 물자교류를 알선해주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경제지도기관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원칙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물자교류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기업체들의 생산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아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기업체, 물자교류